방통위, 페이스북 상대 항소 계기 망접속료 논쟁 점화

"망 사용 비용 비싸다" vs "글로벌 CP들 무임승차" 공방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제한 쟁점

"망 비용 상승구조로 경쟁력 저하"
"CP, 본인 책임을 이용자에 전가"

페이스북 로고.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페이스북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이동통신사의 공방이 또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또 다시 페이스북에 맞서는 방통위의 적극적 행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날지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해당 망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 지난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번 항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일 수 있다는 데 의의도 있다. 이날 퇴임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통을 다음 위원장에게 넘긴 셈이다.

이날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제도 미비의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법원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법적 공방은 국내외 CP와 통신사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

실제 국내외 CP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이후 망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국내외 CP들은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며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사업자들이 상호접속고시 개정과 관계 없이 망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CP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이하는 것"이라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차지하는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며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 이로 인해 국내 CP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코드제로 A9 광고, '셜록' 효과에 500만뷰

LG전자 광고영상 '클린 홈즈'

광고 속 왓슨 박사가 셜록 홈즈가 준비한 LG 코드제로 A9을 받아들고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편리함을 소개한 광고영상 '클린 홈즈'가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 드라마 '셜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상을 제작했다. LG전자는 원작의 OST곡 'The Game is On'을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사인 하츠우드필름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을 정도로 광고 제작에 공을 들였다.

광고에서 청소 전문가로 변신한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에게 의뢰가 들어온다. 현장에 도착한 홈즈는 드라마에서처럼 여러 단서들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그려본다. 때마침 의뢰인의 집에 LG 코드제로 A9이 도착한다. 홈즈는 코드제로 A9으로 18분이면 132제곱미터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고 재빨리 계산을 마친다.

셜록 홈즈는 물걸레 흡입구, 미세먼지 99.999% 차단, 교체형 듀얼 배터리, 스탠드형 거치대 등 코드제로 A9의 차별점을 특유의 스타일로 소개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스토리와 재미는 물론, 영국 드라마의 영상미 속에 코드제로 A9만의 뛰어난 성능과 차별화된 편리함을 담았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점프 AR·VR' 인기… 앱 설치 70만건 돌파

SKT AR동물원·VR 생중계 등 서비스

SK텔레콤은 '점프 AR·VR' 출시 약 40일 만인 지난 8일 앱 설치 70만 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점프 AR·VR는 SK텔레콤이 만든 초실감 미디어 통합 플랫폼이다. 동물을 AR로 보는 AR 동물원, 롤(LoL) 파크 가상 공간에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AR LoL파크 순간이동, 롤 챔피언스 코리아(LCK) 경기 VR 현장 생중계, 경기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는 VR 리플레이(전지적 와드시점) 등을 서비스 중이다.

특히 AR 동물원은 서울 올림픽공원에 '초거대 고양이' 인증샷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지난달 31일 롤 챔피언스 코리아(LCK) 결승전에서 12만 명이 5GX VR 생중계와 멀티뷰 서비스로 T1과 그리핀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는 결승이 열린 고려대 화정체육관에 모인 3000여 관중의 약 40배 규모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점프 AR 이벤트에 응모한 당첨 고객을 대상으로 'LoL 파크' 투어 행사를 8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SK텔레콤 e스포츠팀 T1의 선수들이 투어 현장을 찾아 고객들과 '깜짝 팬미팅'을 가졌다.

/김나인 기자

KT, 빅데이터로 글로벌 감염병 방지 기여

'GEPP' 글로벌 서비스 스타트
감염병 증상·예방법 등 제공

라오스 GEPP 런칭행사에서 분꽁 시하웡 라오스 보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KT

KT의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이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KT는 지난 6일 오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라오스 보건부,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함께 '라오스 GEPP' 출시행사를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진행하는 '라오스-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과 함께 열렸다. 행사에는 분꽁 시하웡 라오스 보건부 장관, 폰파삿 사야멍쿤 라오스 감염병 관리국 부국장,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신성순 대사, 한국 보건복지부 정홍근 국장, 최원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장 윤혜정 전무,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등 양국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다. 2007년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총29개국 84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참여해 한국의 보건의료 기술 및 정책을 배우고 있다.

'라오스 GEPP'는 스마트폰에 '라오스 GEPP'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라오스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 지역, 유행 감염병 증상 및 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감염병 발생지역에 방문한 국민들에게 경고를 보내 주의를 요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의심증상이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증상을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 라오스 보건부 감염병 관리국에서는 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KT는 GEPP 외에도 라오스 보건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지속 협력해 ICT 역량을 활용한 라오스의 공공보건 역량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을 기반으로 '영·유아 백신접종 이력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ICT 기반 공공보건 사업을 민관협력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K에너지, 전국 10개 주유소서 3주간 전기차 무료 충전

SK에너지가 국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에 포문을 열었다.

SK에너지는 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SK 주유소 10개소에서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한다.

무료 충전은 SK에너지 전기차 충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에 제공된다. 부산 SK연지주유소, 대구 칠곡IC주유소, 경기 동탄셀프주유소, 포항 V2010주유소, 서울 양평 주유소 등에서다.

SK에너지 이운희 리테일 사업부장은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친환경 가치를 높이고, SK주유소를 모든 자동차 고객들이 활용하는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연내 20개 주유소, 내년까지 총 40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2023년에는 19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웅기자 juk@